

## 기아타이거즈 1위 폭염 잇은 야구팬 “V11” 연일 신바람

호랑이 군단의 시원한 질주가 호남민들의 가슴을 시원하게 하고 있다. KIA 타이거즈가 대구에서 열린 삼성 라이온즈와의 '미리보는 한국시리즈'에서 2승1패를 거두며 1위 재탈환에 성공했다. <관련기사 3·16면>

마운드의 힘으로 2009년 패권을 차지했던 KIA가 올 시즌에는 화력까지 더해 우승행보에 속도를 내면서 호남의 야구 열기도 뜨거워지고 있다.

KIA는 지난 8일 윤석민을 앞세워 LG를 1-0으로 꺾고 651일 만에 정상에 오르며 V11의 서막을 알렸다. 10번째 우승을 차지했던 2009년에 비해 빠른 속도였다. KIA는 2009년에는 8월 2일 삼성과의 홈경기에서 4-3 승리를 거두며 2516일만에 1위 자리에 올랐다. 이후 1위를 내주지 않은 KIA는 한국시리즈 우승까지 동시에 달성했다.

승를 싸움에서 밀리며 '1일 천하'가 되기는 했지만 15일 윤석민의 1피안타 완봉승이 팀을 다시 1위 자리에 올려놓았다. 16일 3-4 1점차 패배를 당하며 1위 자리를 내줬던 KIA는 17일 로페즈의 조기강관이라는 위기에 승리를 낚으며 1위 독주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화력은 더 강해졌고, 원투펀치는 더 날카로워졌다. 이범호의 영입으로 타선을 보강한 KIA는 타격 선수를 달리고 있는 이용규와 부활을 예고한 김상현의 한방 등으로 팀 타격부분 1위를 싹쓸이 하고 있다.

윤석민(11승)과 로페즈(10승)로 이뤄진 원투펀치는 팀 내 다승왕 싸움을 전개하면서 마운드 왕국의 위엄을 세우고 있다. 신입 호랑이 트레비스도 3.09의 방어율로 7승을 쌓으며 선발진에 힘을 더하고 있다.

야수진의 전력도 탄탄해졌다. 이용규·김상현·최희섭·안치홍·김선빈 등 '부상로테이션'라고 부를 정도로 주전 선수들의 부상도 이어지고 있지만 예년과 달리 부상 공백이 전례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다. KIA는 총총해진 조직력과 업그레이드된 선수

층으로 꾸준한 성적을 만들어가고 있다. KIA의 선두권 질주에 야구장을 찾는 발걸음도 이어지고 있다. 두산과의 홈경기가 열린 14일 장맛비에도 7307명이 무등경기장을 찾은 등 올해 누적 관중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1% 증가한 38만8539명에 달했다.

4명의 올스타 베스트 10도 배출됐다. 이범호는 KIA 유니폼을 갈아입은 첫째 전제 3위로 별종의 별이 됐고, '꼬꼬마 키스톤' 안치홍·김선빈 그리고 '미친 질주'의 외야수 이용규도 팬들의 선택을 받았다.

삼성과의 빅매치를 워닝 시리즈로 장식하며 선두에 오른 KIA는 백전노장 이종범과 좌완 희망으로 떠오른 마네 심동섭 등 신구 조화속에 2011년 정상 정복을 예고하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A씨와 업자가 금품 수수사실에 대해 서로 부인하고 있는 상태"라며 "사실관계를 밝히기 위해 검찰에 고발했다"고 말했다.

광주시 출연기관인 광주문화재단 사무직 B씨는 광주문화예술평화위원회 재직 당시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노트북과 카메라 등 관용물품 5~6점 1000여만원어치를 몰래 빼내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공직사회 부정적 경 등 자정노력을 하는 과정에서 이들 공무원의 비위행위를 적발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공직감찰 활동을 펼쳐 공무원의 금품수수 등 직무관련 비리를 발본색원하고 비리 공직자에 대해서는 일벌백계로 강력하게 다스려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지난달 20일 간부 회의에서 “공직 비리는 보호받아서도, 용서받아서도 안 된다”며 “공직 비리를 과감하게 드러낼 수 있도록 감찰활동을 철저히 하라”는 강연대

시장의 지시에 따라 지난 1일부터 분청과 구청 및 산하기관 등을 상대로 대대적인 감찰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에 앞서 전남도는 최근 연구비 횡령 혐의로 구속된 전남해양수산과학원 6급 직원의 상급자인 해당 사업소장을 직위해제하고 해양수산과학원장에 대해서는 성과연봉 지급대상에서 제외했다.

한편, 18일에도 북태평양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가끔 구름 많겠지만 대기불안정에 의해 오후 늦게 소나기(강수확률 60%)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양승희기자 yang@kwangju.co.kr

광주시는 1999년 대학설립인가 신청서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수익용 기본재산(14억원 이상)에 대해 허위 서류를 제출한 후, 해당 금액을 불법 인출해 임의로 사용하고 교비 12억원을 횡령하는 등의 비리가 드러났다. 또한 법적 정원 이외의 신입생을 받아들였고 출석도 하지 않은 학생들에게 학비만 내면 학점을 줬다. 직원이 사적 용도로 사용한 교비를 제대로 회수하지 않음은 물론 전 총장의 생계비를 부당하게 지원하기도 했다.

광주시는 17일 대학경영부실 실태 조사 결과 횡령 등의 혐의가 드러난 명신대에 감사 결과를 이행토록 촉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임원 8명에 대해 취임승인 취소 처분, 학교 폐쇄, 법인해산 등의 질차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6면>

또한 설립자 가족의 전·현직 총장 등을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며, 비리 관련자에 대해서도 징계할 방침이다. 교과부의 종합감사 결과 명신대는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 미비, 등록금 유용 혐의, 정원의 불법 학생 선발 및 학점남발 등의 의혹을 받고 있다. /홍희기자 redplane@kwangju.co.kr

광주시는 17일 대학경영부실 실태 조사 결과 횡령 등의 혐의가 드러난 명신대에 감사 결과를 이행토록 촉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임원 8명에 대해 취임승인 취소 처분, 학교 폐쇄, 법인해산 등의 질차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6면>

또한 설립자 가족의 전·현직 총장 등을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며, 비리 관련자에 대해서도 징계할 방침이다. 교과부의 종합감사 결과 명신대는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 미비, 등록금 유용 혐의, 정원의 불법 학생 선발 및 학점남발 등의 의혹을 받고 있다. /홍희기자 redplane@kwangju.co.kr

광주시는 17일 대학경영부실 실태 조사 결과 횡령 등의 혐의가 드러난 명신대에 감사 결과를 이행토록 촉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임원 8명에 대해 취임승인 취소 처분, 학교 폐쇄, 법인해산 등의 질차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6면>

또한 설립자 가족의 전·현직 총장 등을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며, 비리 관련자에 대해서도 징계할 방침이다. 교과부의 종합감사 결과 명신대는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 미비, 등록금 유용 혐의, 정원의 불법 학생 선발 및 학점남발 등의 의혹을 받고 있다. /홍희기자 redplane@kwangju.co.kr

광주시는 17일 대학경영부실 실태 조사 결과 횡령 등의 혐의가 드러난 명신대에 감사 결과를 이행토록 촉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임원 8명에 대해 취임승인 취소 처분, 학교 폐쇄, 법인해산 등의 질차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6면>

또한 설립자 가족의 전·현직 총장 등을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며, 비리 관련자에 대해서도 징계할 방침이다. 교과부의 종합감사 결과 명신대는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 미비, 등록금 유용 혐의, 정원의 불법 학생 선발 및 학점남발 등의 의혹을 받고 있다. /홍희기자 redplane@kwangju.co.kr



반갑다! 파란하늘 광주시역 낮 기온이 33.1도까지 오른 17일 광주시 북구 생용동 금호패밀리랜드 야외수영장을 찾은 가족단위 피서객들이 물놀이를 즐기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 광주시·전남도 고강도 사정 市, 금품수수 직원 직위해제·고발 道, 구속 공무원 상급자 직위해제

광주시가 업자로부터 수백만원 대의 선물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상수도사업본부 시설 6급 토목직 A씨를 직위해제한 뒤 검찰에 고발하고, 컴퓨터 등 관용물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광주문화재단 사무직 B씨에 대해서는 재단 측에 해임을 요구했다.

“바리 공무원 연대책임”을 전명해 온 전남도는 최근 연구비 횡령 혐의로 구속된 전남해양수산과학원 6급 직원의 상급자인 해당 사업소장을 처음으로 직위해제했다. 최근 고강도 공직감찰에 나서고 있는 시·도의 이례적 조치에 공직사회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관련기사 5면>

17일 광주시에 따르면, A씨는 공사를 소개해 주는 등의 조건으로 벌목업자 C씨로부터 지난 5년간 수차례에 걸쳐 수백만원의 선물과 향응을 접대받은 정황이 포착됐다. A씨는 조사과정에서 일부 혐의는 시인했으나 금품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 관계자는 “A씨와 업자가 금품 수수사실에 대해 서로 부인하고 있는 상태”라며 “사실관계를 밝히기 위해 검찰에 고발했다”고 말했다.

광주시 출연기관인 광주문화재단 사무직 B씨는 광주문화예술평화위원회 재직 당시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노트북과 카메라 등 관용물품 5~6점 1000여만원어치를 몰래 빼내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공직사회 부정적 경 등 자정노력을 하는 과정에서 이들 공무원의 비위행위를 적발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공직감찰 활동을 펼쳐 공무원의 금품수수 등 직무관련 비리를 발본색원하고 비리 공직자에 대해서는 일벌백계로 강력하게 다스려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지난달 20일 간부 회의에서 “공직 비리는 보호받아서도, 용서받아서도 안 된다”며 “공직 비리를 과감하게 드러낼 수 있도록 감찰활동을 철저히 하라”는 강연대

시장의 지시에 따라 지난 1일부터 분청과 구청 및 산하기관 등을 상대로 대대적인 감찰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에 앞서 전남도는 최근 연구비 횡령 혐의로 구속된 전남해양수산과학원 6급 직원의 상급자인 해당 사업소장을 직위해제하고 해양수산과학원장에 대해서는 성과연봉 지급대상에서 제외했다.

한편, 18일에도 북태평양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가끔 구름 많겠지만 대기불안정에 의해 오후 늦게 소나기(강수확률 60%)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양승희기자 yang@kwangju.co.kr

광주시는 1999년 대학설립인가 신청서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수익용 기본재산(14억원 이상)에 대해 허위 서류를 제출한 후, 해당 금액을 불법 인출해 임의로 사용하고 교비 12억원을 횡령하는 등의 비리가 드러났다. 또한 법적 정원 이외의 신입생을 받아들였고 출석도 하지 않은 학생들에게 학비만 내면 학점을 줬다. 직원이 사적 용도로 사용한 교비를 제대로 회수하지 않음은 물론 전 총장의 생계비를 부당하게 지원하기도 했다.

광주시는 17일 대학경영부실 실태 조사 결과 횡령 등의 혐의가 드러난 명신대에 감사 결과를 이행토록 촉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임원 8명에 대해 취임승인 취소 처분, 학교 폐쇄, 법인해산 등의 질차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6면>

또한 설립자 가족의 전·현직 총장 등을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며, 비리 관련자에 대해서도 징계할 방침이다. 교과부의 종합감사 결과 명신대는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 미비, 등록금 유용 혐의, 정원의 불법 학생 선발 및 학점남발 등의 의혹을 받고 있다. /홍희기자 redplane@kwangju.co.kr

광주시는 17일 대학경영부실 실태 조사 결과 횡령 등의 혐의가 드러난 명신대에 감사 결과를 이행토록 촉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임원 8명에 대해 취임승인 취소 처분, 학교 폐쇄, 법인해산 등의 질차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6면>

또한 설립자 가족의 전·현직 총장 등을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며, 비리 관련자에 대해서도 징계할 방침이다. 교과부의 종합감사 결과 명신대는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 미비, 등록금 유용 혐의, 정원의 불법 학생 선발 및 학점남발 등의 의혹을 받고 있다. /홍희기자 redplane@kwangju.co.kr

## 장마 끝 폭염 시작

무더위 당분간 지속

장마가 물러나고 본격 무더위가 시작됐다. 17일 정오를 기해 나주·구례·화순·광양·순천·고창·김제·완주·익산·정읍·전주 등 전남·북 11개 시·군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지는 등 한여름 날씨를 보였다.

광주지방기상청과 전주기상대에 따르면 김제의 낮 최고기온이 35.2도로 올 들어 가장 높았고, 정읍 34.1도, 구례 34도, 완주 33.9도, 순천 33.7도, 화순·남원·고창 33.5도, 전주 33.3도, 광주 33.1도 등 광주와 전남·북의 많은 지역에서 33도를 넘어섰다.

열대야도 기승을 부렸다. 지난 16일 순천의 최저기온이 25.2도, 장흥이 25.1도를 기록하는 등 13일부터 16일 사이에 장흥·보성·영광·영암·순천·무안에서 1일 최저기온이 25도를 넘어서는 열대야 현상을 보였다.

이 같은 무더위와 열대야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방기상청 관계자는 “당분간 무더위가 지속될 것으로 보여 노약자들은 가급적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18일에도 북태평양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가끔 구름 많겠지만 대기불안정에 의해 오후 늦게 소나기(강수확률 60%)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양승희기자 yang@kwangju.co.kr

학교설립 57주년 (1954~2011)  
기독교 명문대학  
광신대학교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062)605-1115

광주의 새로운 명문 대학교  
남부대학교  
(062) 970-0114  
꿈을 이루는 특성화 대학  
전남과학대학  
(061) 360-5050

www.hpdynastycc.co.kr  
제2회 광주일보배 전국남자아마추어골프대회  
주최 | 광주일보사, 주관 | 함평다이내스티 컨트리클럽  
지회를 위한 품격있는 골프장  
친환경 나비고장 합평에 오시면 사계절 양잔디, 한쪽의 수채화 같은 함평다이내스티가 여러분의 삶에 여유로움과 잊지 못할 추억을 드리겠습니다.  
함평 다이내스티 컨트리 클럽 | 전남 함평군 학교면 곡창리 산 1-6, 예약전화: 061-320-7700, 7777